

수요 인터뷰

결국 '중징계' 선언... 파장 클 듯

조계종-선학원 문제발생 20년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선학원 문제'를 더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조계종의 입장파 법인을 종단 산하의 기구로 둘 수 없다는 선학원측의 입장이 결국 '결별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계종이 선학원의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아직 징계 대상과 범위는 거론되지 않지만 현재 선학원의 임원(16명)들 대부분은 "징계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는 종단의 징계를 이유로 재단을 떠나거나 정관개정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선학원 재단 설립시(1934년) 조계종 스님들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의 문제는 조계종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에 등록된 재산의 환수는 민법상(32조 43조 등)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의 재산환수 문제는 출연재산의 파악과 법적 절차등을 감안 '장기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의 한 임원은 "발상자

특독 및 관리법'을 통해 사실상 대한 재산상 인사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나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정관개정 불응의 요인으로 꼽힌다.

조계종은 종단으로 돌아 올 스님들이 상당수 있다고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선학원측은 냉담한 반응이다. 그간의 분원장회의에서 보여준 결속력과 분원장들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스스로 재단에 등록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이미 재단에 출연된 재산은 사적인 이유로 회수해 갈 수 없다는 현행법도 분원장들이 선학원을 쉽게 떠나지 못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조계종은 "재산적 보호가 확실한데 왜 정관개정을 않느냐고 묻고 있다."

조계종은 3월 총회에서 총무원법을 개정, 조계종 관련법인의 법인특성을 의무화하는 시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계종이 19일 밝힌 성명대로라면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중무직 취임 불가와 조계종 승려자격 정지 부분에 따라 원로 스님들의 조계종 원로직도 취소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원로스님들에 대

용성스님(1864~1940)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앞장선 선사일 뿐 아니라 일제치하에서 한국불교 중흥과 독립운동을 선도한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다. 민해스님과 더불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용성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을 만났다.



'용성스님의 달' 행사 준비 도문 스님

"대각교운동 다시 전개"

-행사는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우선 3월 1일 그 탑골공원에서 용성스님추모법회를 갖습니다. 또 스님의 유물유품전이 3월 한달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관려기사 7면)되며 영가찬도법회와 유해비제막식도 불행됩니다. 스님의 사상과 근 현대 불교사를 연구하기 위한 대각사 상연구원이 개원되고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립극장에서는 박법흥교수가 창작한 국악교성곡 '용성'의 음악제도 열립니다.

-이번 행사들을 계기로 만해스님에 비해 잘 안 알려졌던 용성스님이 어떠한 분인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스님은 16세 때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오로지 경성성불을 위해 일로매진하여 23세 때 모래원에서 첫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40세까지 20여년간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수행 정진하시다가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본격적으로 대각교운동을 펼치시는 등 중생구제에 나섰습니다. 대각교운동이란 "내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자"는 자각각타운동입니다.

-스님은 현대 찬불가의 선구자로도 밝혀졌지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늘 중생구제와 민족독립의 역량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를 고심했고 그것은 불교를 대중화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구제하자는 원력으로 귀결되었지요. 최초로 찬불가를 작사 작곡하신 일

용성스님 오도처순례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미려하나마 스님의 유물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으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인 듯 싶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큰 스님의 법력이 그리워지는데요. 용성스님의 뜻을 오늘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요.

▲스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그것이 불교중흥 민족중흥, 나아가 인류중흥으로 이어집니다. 스님은 '심처존불 이사불공(心處存佛 理事佛供)'을 말씀하셨지요. 즉 마음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모든 일을 불공처럼 정성으로 하라는 뜻이지요. 참선 주력, 간경 열불 등 수행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상보에 귀의해 참회발원하면 저절로 전인류가 부모에 효도, 스승을 공경하며, 나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경숙 기자

MF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교계가 재산의 보호를 골간으로 하는 분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교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측의 명분이 어떤 것이건 사회에서는 '재산싸움'의 선상에서 이 문제를 볼 것이란 점때문이다.

교계반응

"분열상 보이지 않도록 출가정신으로 대화"

질적 이익 때문에 부처님 법의 정신을 퇴색 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양측이 결별의 수순을 밟으면 결국 법적 시비가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보정재의 손실도 자명한 것이라며 승가의 기본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사회적 변화속에서 더이상 불교계의 분열상을 보이지 않도록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학원 소속 스님중 조계종 스님은?

▲선학원의 전체 분원수는 5백 50여개 이 중 90%에 해당하는 4백 95개 사찰의 분원장이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원장들의 도제와 은사등 권속을 합하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석주, 진제, 정일, 범행스님 등 원로들도 다수.

- 선학원 정관개정 절차는?

▲선학원 정관 33조는 "본 정관

공급합니다

분원장 90% 조계종 소속 석주·정일·범행스님 등도

을 개정하고자 할때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규정하고 있다.

- 선학원 설립시 스님들의 재산 출연 현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계종은 1934년 설립 당시 만공 경산 성월스님들이 수덕사 대승사 직지사 범어사등의 전답을 선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지가는 8만2천9백70원45전.

제가 삼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3월에 열리는 제14차 행자교육원에 선학원 소속 행자의 입장을 거부한 조계종은 가을 단일계단에도 선학원 소속 사미(니)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종립대등의 각종 장학혜택도 규제할 방침이다. 이는 종단이 선학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 조치다.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선학원은 도제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상황. 선학원의 한 임원스님은 "종단과의 문제가 악화될 경우 선학원의 자체적인 교육기관과 수계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분종 내지 선학원의 별도 종단 창종이라는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어서 선학원이 이미 결별의 각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남겨준다.

조계종 선학원 문제의 발단은 멀게는 78년 선학원이 정관 제6조를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고친데서 찾을 수 있다. 조계종은 95년 4월 중앙총회 선학원대책특위는 선학원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봉대' 내용 삽입, 임원선출시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추천 등 3개항을 선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선학원은 90%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에 반대사를 보여 종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조계종이 요구하는 '임원 선출시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추천' 부분은 선학원에 대한 인사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선학원의 강한 반발을 산 부분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사실사업

한 발언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선학원과 조계종이 결별 수순을 밟아 급기야 '판 살림'으로 갈라설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통 선 수행의 가치를 내세워 항일의 궤도를 세웠다는 점에서 청정성과 역사성을 인정 받아 온 선학원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산보호라는 현실 문제로 종단과 결별하는 모습이 급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역시 상처를 클 것으로 분석된다. 종단의 모체로 인식되어 온 선학원을 떼어 낸다는 것과 상당수의 소속 승려를 잃는다는 것 역시 종단 이미지 제고에 적잖은 상실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선학원 문제일지

- △95. 6. 23 중앙총회 선학원특위 해체-총무원 이관
- △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 △95. 9. 28 제118회 중앙총회 법인대책특위 구성과 법인 임원 징계 결의
- △95. 10. 5 선학원이사회-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 △95. 11. 8 선학원 전국분원장회의(경주)-독자노선표방 결의
- △95. 12. 18 종단주최 '전국분원장초청간담회' 개최-법인대책특위 요구에 대한 동의 요청
- △96. 3. 27 제120회 중앙총회-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 선학원 이사 징계 결의
- △96. 6. 18 제121회 중앙총회-조계종산하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수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분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정에 밝히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세요. 기승속은 시원매지고 어제는 으쓱해드립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